

#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질적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 연구

양희영\* · 양숙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Qualitative Continuity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Hee-Young Yang\* · Sook-Hi Yang\*\*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10. 26 토)

### ABSTRACT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s a relative concept, and there are various categories of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our circumference. In the thought of postmodernism of the late of 20th Century, continuous creations of the difference and the repetition have been regarded as a discontinuity. But, because of that catches the moment occurring qualitative skip though the flowing of the everlasting time, this has been known to a shortsighted viewpoint overlooking characteristic of the qualitative continuity of an organism, which have been created continuous formation for life through the flowing of the time.

Therefore, this had studied like this complex social condition and various relationships expressed in modern fashion focusing on permanently creative movements and behaviors equal to the qualitative continuity. This Thesis is following study about continuity, and aims at understanding of those formative characteristics through consideration about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continuity. And, this analyzes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qualitative continuity into 5 sets: enlargement, conversion, structural variability, mutual combination, and deconstruction.

This thesis intends to grasp complex modern social phenomenon and modern fashion into qualitative continuity that means continuous formation and the change of various relationships according to recognition about the course toward open thinking.

Key words: qualitative continuity(질적 연속성), enlargement(확장), conversion(전환), structural variability(구조적 가변), mutual combination(상호 결합성), deconstruction(탈구조)

## I. 서론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개념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으로, 우리주변에는 다양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20세기 후반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유 하에서는 지속적인 차이와 반복의 생성을 단절과 유사한 의미에서의 불연속성으로 인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유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만 집중한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을 위한 지속적인 생성을 창조하는 유기체적인 ‘질적 연속성’의 측면을 간과한 근시안적인 관점이다.

질적 연속성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차이를 생성하는 유기적인 삶의 지속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지되었던 기존의 양적 연속성의 개념과 차이와 변화가 외적으로 두드러지는 질적 도약단계인 불연속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연속성의 확장된 개념이다. 따라서 질적 연속성의 개념 하에서는 변화와 불변, 차이와 동일성이 단일 특성으로 단절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나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변화되어지는 현대패션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분석틀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복잡다단한 사회현상과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성을 질적 연속성이라는 사유, 즉 베르그송(H.Bergson)의 ‘지속’이나 들뢰즈(J.Deleuze)의 ‘차이의 연속적인 생성’과 같은 지속적인 창조적 행위나 움직임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대 패션 디자인의 연속성 연구’라는 선행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개념을 분석하고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속성의 개념을 정립하여 논문에서 활용할 질적 연속성의 개념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베르그송과 들뢰즈의 질적 연속성의 특성을 고찰한 후 이를 현대 패션 디자인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을 ‘되기’와 해체주의의 패션인 씨쓰루 룩(see-through look)에

의한 지각적 연속성, 공간의 확장, 공간의 상호관입, 유동적 공간에 의한 공간적 연속성, 모듈러(modular)나 폴딩(folding) 등의 건축적 패션에 나타난 신체 경험의 전이적 연속성, 디지털과 패션의 결합되어진 비물질적 정보의 연속성, 급변하는 자연이나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으로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본인의 연속성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상기의 고찰을 통해 나타난 질적 연속성의 다섯 가지 특성 고찰을 통해 각각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는 다소 미진하게 수행되었던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질적 연속성에 대한 개념을 보다 확실히 하고, 차이와 반복을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현대의 다양하고 아방가르드한 패션 디자인의 창조적 토대를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철학, 사회학, 패션 등의 문헌 고찰을 통한 이론 연구를 수행하고, 패션 잡지, 인터넷 사이트, 패션 서적 등의 사진 자료를 실증적 분석 자료로 적극 활용하며, 연구 시기는 현대 패션에 있어서 질적 연속성의 특성이 두드러져 나타난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제한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질적 연속성의 개념은 무엇인가.
2. 현대 패션에서는 질적 연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3. 2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현대 패션에서의 질적 연속성에서는 어떠한 조형적 특성이 고찰되어지는가.

## 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질적 연속성

본 연구자는 일반적인 연속성의 개념이 확대되어진 질적 연속성의 개념에 근거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이질적이고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먼저 질적 연속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위해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일반적인 개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속성의 개념을 질적 연속성과 양적 연속성으로 분류하여 이를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 1.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일반적 개념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주변에는 다양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연속성의 사전적 정의는 1) 끊이지 않고 이어지거나 지속되는 성질이나 상태, 2) 사물이나 현상이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끊임없이 넘어가는 성질(철학), 3) 실수(實數)가 큰 수에서 작은 수의 순서대로 빈틈없이 나열되어 있는 상태, 또는 연속적인 함수(수학)를 의미하며, 불연속성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현상이 서로 실질적으로 구별되며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상태(철학)를 지칭한다<sup>1)</sup>.

연속/불연속의 문제는 존재론적 담론에서 항상 논의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들은 서로를 전제로 해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sup>2)</sup>.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아날로그가 연속성을, 디지털이 불연속성을 지닌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아날로그는 개체들이 각자의 동일성, 정체성을 지니고 존재하는 불연속성을 특징으로 하며 디지털은 개별성이 와해되고 다양하게 형태변이를 일으키는 연속성을 특성으로 이해한다<sup>3)</sup>. 소립자 물리학에서 파악하는 세계는 불연속적이며 현실에서 연속적으로 보이는 현상들도 미시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매우 작은 불연속적인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논의는 세상을 사물의 총체로 파악하느냐, 이질적인 사건들의 존재의 복수성으로 파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sup>4)</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속성은 개별 요소들 간의 통합성에 초점을 두고 결과를 중시하며, 불연속성은 개별 요소의 존재성에 초점을 두고 과정과 운동, 움직임이 강조된다. 오늘날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개념은 무한자(無限者)와 유한자(有限者)라는 개념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카오스 이론<sup>5)</sup>, 프렉탈 이론<sup>6)</sup> 등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차이와 다양성이 생성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불연속성으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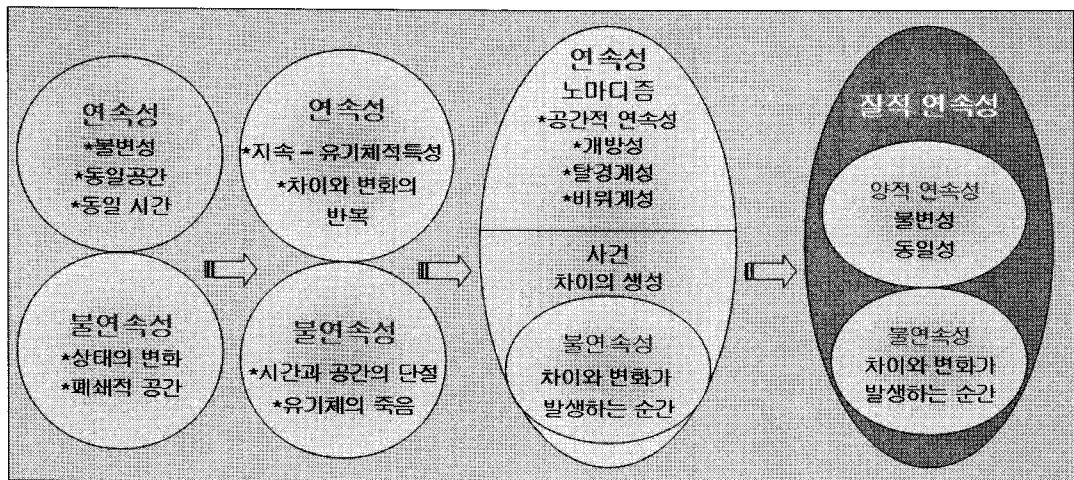
지하고 있다.

## 2. 질적 연속성과 양적 연속성

주체와 객체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며 따라서 다양한 대상간의 이종결합과 같은 퓨전현상을 수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유는 발생초기에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이며 대상간의 경계를 구분하던 모더니즘적 관점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동일화되었던 대상이 다양한 요소로 분해되어지면서 개별요소들을 부각시키고 이들의 운동과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과의 결별을 선언하려는 의도에서 ‘다름이나 단절’을 내포하는 불연속성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 질적 도약 단계, 즉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확장이 일어나는 순간만을 포착한 절대적 시간에 근거한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인식이다.

상기의 연속성의 사전적 고찰에서 주지하였듯이 연속성은 이미 그 자신의 내부에 다른 사물과의 관련성이나 관계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 철학에서는 다수의 철학자들이 연속성의 속성을 시간개념이 제외되어진 대상에 있어서의 동일상태의 항상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근대 이후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시간개념을 포함한 대상들 간의 관계로 전환되었다. 즉 내외부 환경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과학적 시각을 제외하고서는 자연 상태에 있어서의 한정된 공간과 시간적 흐름을 정지시킨 대상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속성에 대한 논의 또한 이러한 사공간적 개념에서 재인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얻었다.

베르그송은 이러한 연속성에 대한 사유를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유기체적 속성을 지닌 ‘지속’이론<sup>7)</sup>으로 설명하였으며, 바슐라르(G.Bachelard)는 불연속성이란 생명유지를 위해 유기체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변화의 순간을 지칭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불연속성이 연속성의 범주 내에 있음을 주장하였다<sup>8)</sup>. 이들 개념을 계승하여 들뢰즈는 라이프니츠(G.W.



〈그림 1〉 질적 연속성의 개념

Leibniz)의 주름개념을 빌려와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연속적이며 변화나 차이가 발생하는 순간은 커다란 연속적인 세계가 주름을 잡혀 주름을 중심으로 다원화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름을 펼치게 되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연속성의 원리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즉, 주름이 생기는 단면 또한 연속적인 세계의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도 미시적 세계로 들어가면 조금씩 나타나던 변화가 증폭되어 폭발하는 순간이 주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속적이며, 일반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 또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변화를 지속한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따라서 변화를 계속하고 차이를 생성하는 유기체의 삶의 지속이 곧 질적 연속성이며 이것은 기존의 항상성으로서의 양적 연속성을 포함하는 연속성의 확장된 개념인 것이다.

다음 〈그림 1〉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개념 및 시간이 정지되고 공간이 제한되어진 어떤 상태나 대상을 파악하는 무기체적인 ‘양적 연속성’과 시간의 흐름 내에서 지속적인 생성을 창조하는 유기체적인 ‘질적 연속성’의 개념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질적 연속성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 연구 - 베

르그송과 들파즈 이론을 중심으로 한 후속 연구로서, 상기의 논문을 통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질적 연속성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질적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 분석은 상기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이해를 돋기 위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 요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내용을 첨가하였다.

1) 지각적 연속성은 일련의 변화나 전환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다른 대상으로 인지되는 들파즈의 ‘되기’와, 숨겨져 있었던 내부구조와 구성 선을 드러내거나 투명성을 통해 내부를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각적 연속성으로 소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되기’는 상이한 두 지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만남과 접속에 속하며 사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유이다. 따라서 ‘되기’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간의 유동적인 힘, 에너지를 포착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형태들 뒤에서 작용하는 비가시적 힘들의 현장을 드러낸 것으로 신체의 되기, 패션의 되기 현상으로 고찰되었다. 또한 안과 밖을 도치시켜 비가시적이던 내부구조를 외부로 드러내거나 직물표면을 커팅하여 공간의 내부와 외부를 유동적으로 순환시키는 패션의 해체주의적 경향과 내부의 숨겨진 부분에 투명성을 도입하는 씨쓰루

패션은 이질적인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축소시켜 내외부 공간을 한 번에 인지하게 해주기 때문에 시각적 연속성으로 고찰하였다.

2) 공간적 연속성은 주름과 오리가미, 공기주입에 의해 패션이 차지하는 공간이 확대되는 공간의 확장, 블립(blob)<sup>10)</sup>과 꼬임에 의해 내외부 공간과 외부공간이 상호 소통하고 내외부 공간사이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공간의 상호관입, 블러링(blurring)<sup>11)</sup>과 재구성, 미구성에 의해 패션의 새로운 공간 창조와 기존 공간의 해체, 각 공간들 간의 자유로운 이동 등이 드러나는 유동적 공간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공간적 연속성은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에서 고찰되었는데, 이것은 직물에 규칙적인 또는 불규칙적인 주름을 형성시키거나 의복자체를 풍선과 같은 공기주머니로 변형시키는 방식에서 나타났다. 공간의 상호관입은 각각의 경계를 허물고 상이하게 분류되었던 공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윤곽이 희미해져 본래의 공간을 상실하거나 하나의 공간으로 관입되는 현상으로 다양한 공간구성의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형성한다. 이것은 각 부분들의 구분이 모호해지거나 통합되어 무정형의 덩어리를 형성하는 블립과, 꼬임(twisting)에 의해 내외부 공간이 상호 교차되는 꼬임에서 고찰되었다. 그리고 유동적 공간은 고정되고 확정되었던 공간 구조를 파괴하고 이들을 자유롭게 교차시킴으로써 새로운 구조나 공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각 공간의 요소들을 파괴하거나 재조합하는 블러링, 기존의 의복구성을 해체하고 각 구성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미완성으로서의 재구성, 형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무형태나 무정형을 창조하는 미구성에서 고찰되었다.

3) 신체 경험의 전이적 연속성은 건축적 구성 방식을 차용하여 이를 패션에 도입한 모듈러 시스템과 폴딩 시스템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신체 경험의 전이적 연속성은 공간 변화에 따른 감각의 연속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건축적 구성 방식에서 잘 드러난다. 모듈러 시스템은 한 부분의 교체를 통해 나머지 시

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로운 스타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변화 가능한 모듈로 구성된 전체는 다양한 조합이 용이하며 부분의 조합을 달리하는 단순한 조작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로의 변신이 용이하다. 또한 폴딩 시스템은 독립된 완결구조가 아닌 패션에서의 열린 체계를 구성함으로서 착용자 스스로가 그들 자신의 패션 공간을 자유롭게 형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접고 펼치는 간단한 조작을 통해 의복과 타 영역과의 상호 결합성과 가변성, 기능성, 이동성을 증가시켰다.

4) 비물질적 정보의 연속성은 인간과 매체, 혹은 매체를 통한 인간 사이에서 정보가 양방향으로 상호 작용하는 웨어러블 컴퓨터나 디지털 패션에서 고찰되었다. 디지털 유복민 패션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이동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다양한 웨어러블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다. 무선 인터넷 접속, 비디오 캡쳐와 중계, 건물들에 맞춰진 기술적인 인터페이스 등의 특징을 보이는 이러한 패션은 디자인이나 직물 내부에 시스템을 숨김으로써 착용자가 용이하게 정보와 접촉하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을 드러내는 패션은 주로 기능주의적인 특성을 지니며, 다기능 복식을 통한 자연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 트랜스포머블 패션을 통한 사회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으로 고찰되었다. 자연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은 패션에서 고기능성의복으로 나타났는데, 급격한 자연환경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신소재가 활용되었다. 그리고 사회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은 각종 사회적 테러에 대비한 반테러리즘 패션에서 고찰되었다. 또한 초현대적인 패션들은 도시 환경 내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자에게 건축적 기능과 연관되는 몇몇 장치를 부착하거나 건축적 공간으로 패션을 변화시켰다.

다음의 <표 1>은 현대 패션에 나타나 질적 연속성의 특성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질적 연속성

분류		구성방식
지각적 연속성	되기	형태 모방 해체 : 내외부 도치 씨쓰루 룩 : 투명성을 통한 시각적 통합
공간적 연속성	시각적 연속성	주름 : 하나이면서 둘인 단일 공간 구성 오리가미 : 내외부가 소통하는 개방적인 입체적 공간 공기주입 : 폐쇄적인 입체적 공간
	공간의 확장	블랑 : 다양한 공간이 침투된 비균질적 공간 꼬임 : 내외부 경계가 소멸, 뛰비우스띠의 구조
	공간의 상호관입	블러링 : 구성요소들간의 자유로운 결합, 비위계적 재구성 : 새로운 구성방식 탐구, 과정적 미구성 : 전통적인 구성방식의 해체
신체경험에 의한 전이적 연속성	모듈러 시스템	모듈 방식 : 새로운 조합과 배치가 가능
비물질적 정보의 연속성	풀딩 시스템	풀딩 방식 : 폴스너를 이용한 아이템의 변화
	웨어러블 컴퓨터	가시적 결합 : 패션과 컴퓨터 기술의 결합
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	디지털 웨어	비가시적 결합 : 디지털 첨단 기술과 패션의 결합
	자연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	고기능 패션 : 신체적 기능의 확장
유동적 연속성	사회환경과의 유동적 연속성	구조적, 기능적 결합 : 다목적, 다변화 패션

###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질적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

연구자는 상기의 고찰을 바탕으로 분류되어진 패션자료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질적 연속성을 확장성, 전환성, 구조적 가변성, 상호 결합성, 탈구조성의 다섯 가지 조형적 특성으로 고찰하였다.

#### 1. 확장성

확장성은 패션실루엣의 과장, 과시를 위해 의복 볼륨을 증대시키거나 비가시적인 내부공간이나 구조를 가시화시켜 시각적 능력을 확대시킨 시각적 확장, 새로운 구성방식을 통해 2차원적인 의복 표면에 입체성을 부여하고 표면적을 확대시키거나 다층 구조를 형성한 공간적 확장, 구성요소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기존의 용도를 확대시키는 기능적 확장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 1) 시각적 확장

현대 패션에서는 실루엣의 크기와 관련된 시각적

확장이 이전과는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기존 패션에서의 확장이 신체 형태나 실루엣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칼라, 어깨, 스커트의 크기나 볼륨을 증가시켜 복식의 실루엣을 과장하였다면, 현대 패션에서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파괴하는 이질적인 공간 창조나 독립적인 조형적 형태의 구성으로 전통적인 복식의 실루엣을 일탈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의복은 착용자를 강조하거나 드러내는 기존의 패션 역할을 전복시켜 오히려 신분이나 정체성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한다.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은 2004년도 F/W 컬렉션에서 의복 구조 요소들의 크기나 볼륨감을 일탈해 신체 이미지를 약화시키거나 은폐시키는 의복을 제작하였다. 〈사진 1〉은 과도한 형태의 풀딩 칼라로 구성된 무릎길이의 재킷으로 기존의 의복 요소들 간의 전통적인 프로포션을 일탈하고 있다. 무릎 약간 위쪽에 구성된 벨트는 신체의 움직임을 구속하여 신체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려는 풍성한 볼륨의 스커트 주름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기존 의복 요소들의 프로포션을 일탈한 이러한 확장은 착용자의 위엄을 드러내기 보다는 오히려 착용자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린다.

또한 내외부 공간이 도치되어 내부의 구조나 구성적 장치가 외부로 드러나는 해체나, 투명성을 이용해

내부와 외부를 시각적으로 동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씨쓰루 룩은 비가시적인 부분을 가시화시킨 시각적 확장이다. 이것은 은폐되는 부분으로 인지되었던 내부 구조와 구성 선을 외부로 노출시켜 내부의 복잡한 구성 방식을 드러내어 미완성된 의복으로 위장하면서 감추어졌던 의복 구성 과정을 시각화하였다.

시각적 확장은 자연스러운 신체에서 벗어나 패션의 실루엣을 비정상적으로 확장하여 착용자의 신체 이미지를 위장하거나 은폐, 혹은 과장한다. 내부 구조를 시각화하거나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지각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각적 확장은 전도와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의복의 해체적 경향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시각적 확장에서는 ‘은폐성’, ‘과장성’, ‘비위계성’, ‘투명성’의 내재적 특성이 드러났다.

## 2) 공간적 확장

공간적 확장은 오리가미와 공기주입, 꼬임등과 같은 패션의 새로운 구성방법에 의해 평면적인 의복 표면이 3차원의 입체적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오리가미는 신체 표면에 수직적인 벌집모양의 구조를 형성하며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상호 소통하는 개방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접고, 자르고, 펴는 방식을 통해 볼륨과 형태가 달라지며 착용 시 신체위에서 반복적인 입체 패턴을 창조한다. 또한 표면에 엠보싱 처리된 직물을 이용한 의복은 신체와 의복 사이에 균일하고 반복적인 빈 공간을 형성하며 의복의 표면을 오목 볼록의 형태로 입체화 시킨다. 이러한 표면처리는 의복의 표면적을 확대하고 신체와의 접촉 부분에 빈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의복 공간을 확장시킨다. <사진 2>는 요시키 히신마(Yoshiki Hishinuma)의 2000년 S/S 컬렉션 작품으로 오리가미 구성법으로 제작된 투피스이다. 이것은 신체 표면 위로 수직을 이루며 입체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벌어진 기하학적 형태의 틈 사이로 신체가 드러나 보인다. 이러한 틈은 신체라인에 따라 신장되어지며 3차원적 조형체로 의복 공간을 확장시킨다.

의복을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한 다층 구조는 층과 층 사이가 고정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서 움직임에 의해 의복 공간을 확장시킨다. 이것은 의복 표

면의 단일구조를 해체하고 공간을 독립적으로 개방시켜 전통적인 의복에서의 위계성을 해체한다. 개방되어진 각 층은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분리되고 펼쳐지며 의복 공간을 복수화 시킨다. <사진 3>은 후세인 샤라얀(Hussein Chalayane)의 2005년도 F/W 컬렉션에서 발표된 것으로 하나이면서 두 개인 다층적 공간을 가진 의복으로, 어깨 점에서 소매의 진동선까지 연장된 구성 선을 따라 투명한 소재가 연결되고 플레이지는 플랫 부분이 부착되어 마치 비치는 조끼위에 짧은 볼레로를 착용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포켓 부분을 제외한 의복 전체가 동일 공간으로 구성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단일 의복에 상이한 계열의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의복 자체의 공간을 다양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간적 확장은 주름이나 오리가미 등의 새로운 의복 구성방식을 통해 열린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을 변화시키는 ‘개방성’, ‘유동성’, ‘가변성’과, 오리가미와 엠보싱에서 보이는 동일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반복성’, 의복을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하여 의복 공간이 다층화 되거나 이전과는 다른 의복 공간을 구성하며 기존의 의복 구성 요소들의 위계를 일탈하는 ‘비위계성’이 내재적 특성으로 고찰되었다.

## 3) 기능적 확장

기능적 확장은 구조상의 변화나 전환 없이 단일 구조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패션의 구성요소를 반복적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복은 복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는데, 많은 주머니를 구성하여 수납기능을 확대거나 신체 활동에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끈이나 지퍼와 같은 패스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패션을 복합적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능적 확장은 많은 수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44개의 주머니가 구성되어 있는 시피컴퍼니(CP company)의 ‘파이널 홈 재킷(Final Home Jacket)’이나 <사진 4>, 자비에 뮤린(Xavier Moulin)과 이즈미 고하마(Izumi Kohama)의 IXI 디자인 그룹의 ‘홈웨어’에서 잘 보여진다. <사진 5>의 의복은 각 부분에 긴



사진 1. Christian Dior, 2004 F/W



사진 2. Yoshiki Hishinuma, 2000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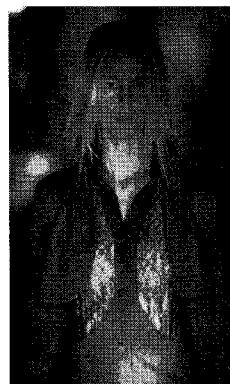


사진 3. Hussein Chalayane, 2005 F/W



사진 4. Final Home Jacket, CP Company, 1995

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통해 착용자의 필요에 따라 끈의 통과 위치와 길이 조절의 정도에 따라 변화되는 의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끈으로 의복을 잡아당기고 지지하여 착용자의 움직임을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기능적 확장에서는 주머니 수의 증대, 연결고리 부착, 내부 삽입 공간 형성 등 의복의 구성요소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의복 기능의 확장을 지향하고 있는 '복합성', '개방성', 끈이나 염서 같은 다른 대상과의 결합을 자유롭게 하는 '결합성'과 '상호작용성'의 내재적 특성이 고찰되었다.

## 2. 전환성

전환은 A에서 B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본래의 목적이나 용도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지칭하며 A와 B의 두 가지 특성이 공존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특성이 내재하는 확장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것은 A→B, B→A로의 상호변화가 가능하며 A=B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와 B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다. 패션에 나타난 전환성은 새로운 소재의 활용과 새로운 구성요소나 구성방식을 도입하여 기존과 다른 목적과 용도로 이용되는 기능적 전환, 전통적인 의복 구성 방식을 일탈하고 스냅, 모듈, 지퍼 등에 의한 새롭고 반복적인 구

성 방식을 창조하는 구성 방식의 전환으로 분류하였다.

### 1) 기능적 전환

의복은 접고 펼치는 폴딩 방식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을 통해 다른 대상으로 전환되어 상이한 기능과 용도, 목적을 수행한다. 이것은 주로 이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른 인테리어 용품이나 가구와 유사한 형태로 의복을 구성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사진 6>은 IXI의 2000년 작품인 수틀팬츠(stool pants)로, 방수 직물로 만들어진 팬츠는 엉덩이 부분에 부풀릴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기 주입구를 통해 공기를 주입하면 엉덩이 부분이 팽창되어지면서 바지와 부착되어 있는 간이 쿠션으로 변하며, 외출 시 매트와 같은 것을 따로 휴대하지 않아도 어느 장소에서나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바지가 공기의 주입을 통해 매트의 기능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준다.

타 영역과의 결합을 통한 이러한 패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도시 유목민을 위해 기존의 착장되는 방식이었던 의복이 거주하는 전축적 기능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사적인 공간인 의복이 공적인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다른 공간과 결합할 수 있는 집합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루시 오르타(Lucy Orta)의 작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녀의 '모듈러 아키텍쳐

(Modular Architecture), 바디 아키텍쳐(Body Architecture), 커넥터(Connector), 라이프 네이션스(Life Nexus)' 시리즈는 이동가능한 건축적 구조를 지닌 새로운 의복의 형태를 제시한다. <사진 7>은 루시 오르타의 2000년 작품으로, 거주 가능한 건축적 기능과 의복 기능을 통합시킨 것으로 넓게 확장시켜 텐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패션기능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전환성은 접거나 펼침, 공기주입 등의 새로운 구성방식을 통해 다른 영역으로 변화되는 것에서 나타나며 이때의 의복 공간은 자유로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동적 공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성', '가변성', '유동성' 등의 내재적 특성이 드러난다. 또한 의복의 유동적 공간은 타 영역으로의 변화를 허용하는 개방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변화는 순간적인 조작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개방성'과 '일시성'의 내재적 특성이 고찰되었다.

## 2) 구성방식의 전환

전통적인 의복 구성 방식의 일탈과 해체는 패션 상호간의 또는 다른 영역과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상이한 영역간의 경계를 와해시킨다. 이것은 공간에서의 내·외부의 상호침투를 가능하게 하고 각각의 경계를 이탈하여 타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의복에서의 새로운 구성 방식에 대한 연구는 의복을 구성하는 재료를 변화시켰고, 착용

자의 필요와 용도에 따른 형태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새로운 구성 방식으로 제작된 의복은 신체의 실루엣을 따라 일부분으로 분리되던 기존의 의복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동일한 형태와 크기를 가진 조각들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바구니를 엮는 형식과 동일한 형태로 의복을 구성하거나, 스냅, 지퍼, 끈 등을 결합하는 등 새로운 구성법에 의한 의복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후세인 살라안은 재단되지 않은 직물과 끈, 실 등 구성으로 조작되지 않은 재료들을 이용해 창조할 수 있는 의복의 다양한 형태를 실험하였다. <사진 8>은 2002년도 F/W 컬렉션으로 다양한 형태로 조합되어진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의복은 이질적인 조각들과 실, 끈으로 복잡하게 제작되었으며, 조각난 천과 실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소매는 기존 소매의 형태와 구성 방식을 일탈하고 있다. 의복의 외피는 구멍이 뚫려 내부 직물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불륨감 있는 스커트는 찢어지고 해체된 듯한 이미지이다. 이것은 의복을 착용했다는 느낌보다는 조각나고 찢어진 천과 끈을 마구잡이로 신체에 두른 듯하다.

전통적인 의복구성요소들을 해체하고 각 부분들을 결합 가능한 모듈로 변화시키거나 패스너(fastener)를 이용한 결합방식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의복구성 방식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의복 기능을 변화시킨 것으로 '결합성', '단순성', '반복성' 등의 내재적 특성이 고찰되었다. 또한 의복을 탈 구조화시켜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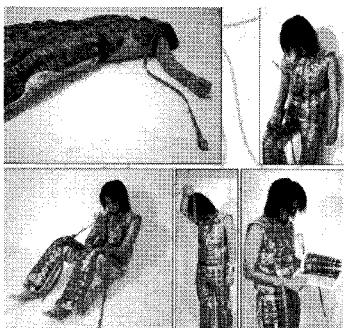


사진 5. high-tension, IXI,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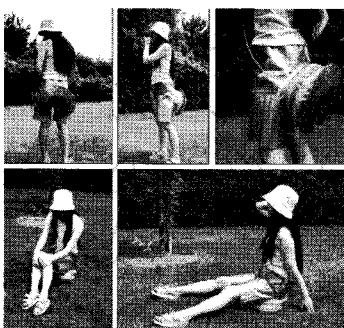


사진 6. stoolpants, IXI,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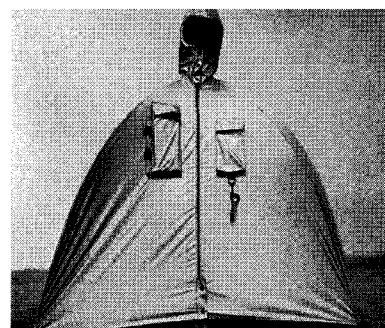


사진 7. Lucy Orta,  
Contemporary Urban Shelter, 2000

구성 방식을 탐구하며 다양한 방식이 혼합되어 의복 구성에 활용되기 때문에 의복은 해체되거나 이질적인 것들이 마구 섞여 있는 혼성적인 상태를 드러내며 요소들 간의 위치나 공간이 일탈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수많은 형태와 공간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확정적인 단일 형태를 규정할 수 없으며 ‘복합성’, ‘탈경계성’, ‘불확정성’ 등의 내재적 특성이 고찰되었다.

### 3. 구조적 가변성

현대패션은 봉제와 같은 영구적인 방법으로 부분들이 결합되던 전통적인 구성 방식에서 착용자의 욕구와 필요성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되는 가변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의복이 단일 기능만을 수행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시스템과 의복을 결합하는 것으로, 의복 구성 요소들을 개방적이고 열린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 가변구조는 모듈러 시스템과 폴딩 시스템을 이용한 변화의 가능성, 미구성적 기법을 통해 무한한 창조가 가능한 변화의 잠재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 1) 변화의 가능성

가능성은 실재하지는 않지만 현실화 된 것으로, 이미 대상 안에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복에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이란 디자이너가 구성 시에 이미 이러한 변화를 철저히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복을 구성한 것을 지칭한다.

건축적 공간 구성 방식에서 기인한 각 부분들의 조립, 조합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모듈러 시스템은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에너지의 흐름이 내재된 가변적 공간을 형성한다. 따라서 모듈러 시스템을 이용한 의복은 그 자체에 이미 변화 가능한 가변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주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의복의 형태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화 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은 착탈이 가능한 모듈러 구조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각 구성 요소들은 해체 가능하며 각각

의 부분이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조각들과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를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다양한 패스너를 이용한 폴딩 방식이나 모듈러 방식에서 나타난다.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을 미리 의도하여 제작한 다기능, 다목적 복식은 이미 의도되어진 기술적 조작에 의한 것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는 불가능하지만 다양한 품목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의복은 폐쇄적인 의복 공간을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데, 개방적 구조를 통한 패션에서의 복합적이고 열린 공간은 과편화되거나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변화를 통해 다양한 차이를 통합하고 새롭게 응축된 공간을 구성한다. 이것은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형태를 고착화시키지 않으며 착용자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 가능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통합적 공간으로 새롭게 창조된다.

페트릭 콕스(Patrick Cox)는 1999년 ‘피스(Pieces)’ 컬렉션을 통해 신발 디자인에서 의복 디자인으로 그의 작업 범위를 확장시켰다. 그는 이 컬렉션에서 새로운 밀레니엄에 적합하도록 불규칙적인 다양성과 기능성을 갖춘 스타일리쉬한 의복이라는 미래적인 컨셉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하였다. 각 조각들은 다양한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듈로 구성되어 변형 가능한 의복으로 제작되었는데<사진 9>, 지퍼와 스냅은 직물의 여분의 길이를 감추기 위해 이용되었고 특히 지퍼는 소매나 바지통, 칼라, 후드, 드레스의 층을 제거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

변화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의복은 각 구성 요소들이 분리되어 자유로운 결합과 해체를 통해 다른 것으로의 변화를 추구함으로, ‘해체성’, ‘결합성’과 ‘가변성’의 내재적 특성이 드러났다. 또한 고정되지 않고 다른 것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역동성’, ‘비결정성’, 접거나 펼치는 과정을 통해 이동시의 휴대를 용이하게 하는 ‘이동성’, ‘편의성’, 고정적이었던 의복이 조각이나 부분들로 분리되어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것에서 기존의 경계를 벗어나는 ‘탈경계성’의 내재적 특성이 고찰되었다.



사진 8. Hussein Chalayane,  
2002, F/W



사진 9. Patrick Cox,  
1999 S/S



사진 10. Vivienne  
Westwood, 2004 F/W



사진 11. Hussein Chalayane,  
2006, F/W

## 2) 변화의 잠재성

잠재성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하는 것으로 인지되어지며, 무한한 창조와 생성을 내재하고 있다. 가능성으로서의 변화를 가지는 다기능, 다목적 패션과는 달리 잠재성으로서의 변화를 가지는 패션은 착용자의 착장방식에 따라 무한히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구성 시 미리 계획하였거나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도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주로 전통적인 구성 방식에서 일탈한 미구성적인 방식에서 많이 나타나며, 비대칭, 불규칙, 불안정한 형태의 감기와 휘두르기, 구성 요소들의 제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사진 10〉은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2004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의복의 각 부분에 벨트를 부착하여 신체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신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아름다운 실루엣을 강조하던 기존의 제작방식에서 벗어나, 신체의 어떠한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으며, 외부와 신체를 격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의복은 벨트의 사용유무와 결합방식에 따라 무한히 변화하며 이러한 벨트의 무작위적인 결합은 의복에 있어서의 위계성을 파괴하며 신체와 의복 사이의 전통적인 이해관계를 해체시킨다.

변화의 잠재성을 지닌 의복은 우연하고 순간적인

요소의 삽입을 통해 새로운 의복 형태나 실루엣이 결정되므로 ‘우연성’과 ‘일시성’의 내재적 특성이 드러났다. 또한 계획되지 않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정적인 형태나 확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구성되지 않은 처음의 상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착용자의 의도에 따른 무한한 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불확정성’, ‘비위계성’, ‘가변성’, ‘무한성’ 등의 내재적 특성이 고찰되었다.

## 4. 상호결합성

상호결합성은 패션과 타 영역간의 하이퍼링크(hyper-link)에서 나타나는 이질적이며 모호한 형태의 대상을 창조해 낸다. 다양한 분야의 구성요소들이 상호 자유롭게 결합하는 하이퍼링크는 복합적이고 다기능적, 다목적적인 대상을 창조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타 영역의 구성요소들과 패션의 상호 결합 현상 중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 건축과 통합하여 ‘기능’이 전환되었거나 확장된 것은 이미 상기의 ‘확장성’과 ‘전환성’에서 고찰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패션의 ‘형태’에 초점을 두어 타 영역 구성요소와의 이종결합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가시적 결합과, 결합관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적 결합으로만 분류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 1) 가시적 결합

타 영역과의 결합이 형태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의복은 의복구성요소들의 전통적인 형태를 일탈하여 다른 영역의 구성요소들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의복의 기준 실루엣은 유지하되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거나 부분적으로 타 영역의 구성요소들을 형태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에서 나타난다. 타 영역과의 이러한 가시적 결합(형태적인 결합)은 주로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대상이나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인간이 사용하는 대상이나 물건, 교통수단 등은 인간 신체의 형태와 움직임을 고려한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요소들을 의복에 결합하는 것은 이들과 인간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드러내며, 의복 형태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복은 주로 후세인 살라얀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는 의복에 인간 신체를 기준으로 제작되어진 각종 가구나 도구들의 일부분을 분리해 이들의 형태를 의복 형태와 결합시켰다. 그는 1999년 ‘에코폼(EchoForm)’ 컬렉션을 통해 가구나 실내 인테리어 용품과 의복과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이러한 의복은 기술적인 장치가 부착되지 않고 외부 표면 효과를 통해 기계의 자동화, 속도, 정확성 등의 특징을 융합시키고 있다<sup>12)</sup>. 후세인 살라얀의 가구와 의복의 결합 형태는 가구 구성 요소의 일부분을 의복 구성에 응용해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형태의 모방이 아니라 가구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을 의복으로 이동시켜 의복의 구성 요소에 적합하도록 재배치시키거나 기존의 기능성을 해체하여 단순한 장식적 요소로 재활용하고 있다. <사진 11>은 그의 2006년도 F/W 컬렉션으로 고급 가죽 소파나 벨벳 소파의 형태를 의복과 접목시키고 있다. 드레스는 앞 뒤 네크라인 부분과 어깨 부위를 소파의 팔걸이와 동일한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데, 어깨 부위에는 기존의 윙(wing) 대신 두툼하게 심을 삽입하여 벨벳으로 마감 처리한 가구에서의 팔걸이가 본래의 기능을 일탈하여 의복의 장식적 용도로 부착되어 있다.

의복에서의 타 영역과의 형태적 결합이 이루어진

가시적 결합은 이전에는 전혀 관련 없었던 구성요소들이 상호 이질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것으로, 새로운 의복 형태의 창조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구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결합성’, ‘상호작용성’, ‘다양성’, ‘복합성’의 내재적 특성이 고찰되었다. 또한 결합되어진 각 부분은 새로운 공간에 배치됨으로써 기존의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탈경계성’의 내재적 특성이 고찰되었다.

### 2) 비가시적 결합

신체에 착장되어지는 의복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정보 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동가능하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디지털 패션으로 변화되었다. 최첨단의 정보 통신 기술이나 의료 기술, 디지털 기술과 패션의 결합은 대부분 비가시적인 내부 공간의 구조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가시적인 결합(구조적 결합)은 기계적 구조를 패션에 그대로 노출시키던 과거의 다소 혐오스러운 형태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기술적 조작을 의복의 내부 구조에 삽입하거나 첨가하여 외양은 일반 의복과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의복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나노 단위의 소미립자 상태의 조작을 의복 외피에 첨가하여 시각적으로 인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패션은 이제 단순한 신체 보호의 물리적 기능이나 정체성, 미적 표현과 같은 기능 외에도 미디어적인 기능을 통합하여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확대되었다. 휴대폰, MP3, 인터넷의 기능을 통합한 웨어러블 컴퓨터는 패션의 기능뿐만 아니라 신체의 기능을 확대시켜 언제 어디서나 착용자의 필요와 목적에 적합한 기술적 조작을 가능케 한다.

제니 틸로슨(Jenny Tillotson)은 향기 뱃지(scent badge)를 통해 향기를 이용한 인텔리전트 패션(Intelligent fashion)을 소개하였다. 그녀는 전자적 후각 기술(electronic nose technology)이라 명명한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향수 전문가, 화학자, 코 전문가, 의학 기술자, 나노기술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패션과 기술, 의학을 결합하여 극소형의 관과 펌프, 센서 시스템과 인텔리전트

의복, 패션 액세서리의 상호 결합을 가능케 하였다. 그녀는 '향기는 케이블 장치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자적인 전파가 가능하다. 우리 신체의 특별한 후각 선에 있는 인간 감각을 모방하기 위해 직물 구조는 직물 내부에서 이러한 감각들을 실질적으로 결합시킨다. 이 시스템은 디자이너 향수를 사용하기 위해 피부에 알콜을 바르는 대신 향기 전달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직물을 이용한다'고 언급하여 의복 자체를 향기 전달을 위한 매개체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sup>13)</sup>.

<사진 12>는 제니 털로슨이 2001년에 발표한 페로메이트(PheroMate)로 폐로몬을 방출시키는 웨어러블한 뱃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전자 후각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패션과 의학을 결합하여 인간 신체 감각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페로메이트는 서로 상대방의 의복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를 통해 착용자에게 어울리는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것은 착용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람들에게서 뿜어 나오는 폐로몬(Pheromone)을 분석하여 착용자와 폐로몬 성분이 비슷한 사람들을 알려준다. <사진 13>은 아이에프엠(IFM)의 2001년도 작품인 '파이어 플라이 드레스(Fire Fly Dress)'와 목걸이로써, 외부 환경이 어두워질 때 자동적으로 빛을 발하는 발광 물질로 구성되었다. 드레스와 화려한 목걸이는 어두워졌을 때 착용자의 가시성을 중대시키기 위해 스스로 빛을 발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미세하게 만들어진 직물 회로와 접열판,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과정에 의해 가능하다. 가시적인 영역에서 드레스와 목걸이는 단지 글래머러스하고 우아한 형태만을 보여주지만 비가시적인 내부에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서 착용자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기술과 의복 사이의 비가시적 결합은 나노 단위의 아주 작은 입자에 대한 기술적 진보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은 컴퓨터나 가정기기, 가정이나 도시환경 외에도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복의 기술적인 진보에도 일조하였다. 비가시적 결합은 고정되고 확정적인 위치와 영역을 탈피하고 관계없는 것들과의 비가시적인 구조적 결합을 통해

기능을 통합하고 확장하기 때문에 '탈경계성'과 '통합성', '결합성', '은폐성', '개방성' 등의 내재적 특성이 고찰되었다.

## 5. 탈구조성

불변성과 영속성,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구조'의 개념과 달리 '배치'는 계열화되는 항들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혹은 어떤 하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종류의 계열로 변환된다는 점에서 매우 가변성이 큰 열린 개념이다. 구조는 하나의 요소나 순서의 변화에 의해서도 쉽게 붕괴되어지는 개념이지만, 배치는 다양한 변화에 의해 다른 배치로 전환될 뿐이지 배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배치는 하나의 배치로서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힘도 지니지만 동시에 다른 배치로 전환하려는 탈영토화의 첨점<sup>14)</sup>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모든 배치는 영토화와 동시에 탈영토화의 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힘의 원리에 따라 유동적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탈구조성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생성하고 차이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기존의 결합을 바꾸고 새로운 결합을 형성한다. 따라서 탈구조는 계열화되는 항들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나 혹은 어떤 하나를 추가하거나 빼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종류로 변화되는 배치를 이용한다. 이러한 탈구조성은 지각적 탈구조, 공간적 탈구조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 1) 지각적 탈구조

지각적 탈구조는 전통적인 의복 구성 요소와는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것들이 나열되고 배치되어서 형성되는 것으로, 기존의 의복 구성 방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의복 구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변화 가능한 새로운 의복구성요소들을 자유롭게 반복 배치하거나 다양한 색상이나 이질적인 패턴의 소재를 상호 연결하여 의복의 실루엣과 길이, 형태를 다변화시킨다. 이러한 이질적 결합은 고정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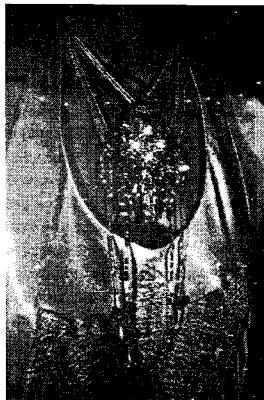


사진 13. IFM, necklace &amp; Firefly Dress,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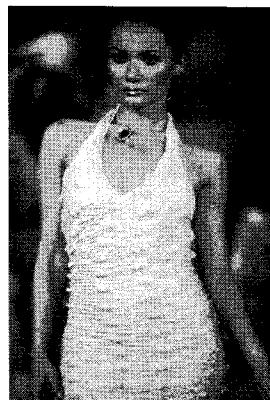


사진 12. Jenny Tillotson, 2001 S/S



사진 14. Yoshiki Hishinuma, 2002 F/W



사진 15. Hussein Chalayane, Media AF Sandys, 2002 F/W

고 확정적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의 창조를 위한 탐구의 과정이며 다양한 공간과 형태를 창조하는 열린 구조를 드러내었다.

〈사진 14〉는 요시키 히시누마의 2002 F/W 컬렉션으로 다양한 패턴과 방향성을 이용해 직물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의복에 사용되던 다크트를 없애고 대신 급격한 사선 분할을 통해 다크트가 해결되어야 하는 여유 분량을 제거하였다. 또한 각 부분은 기하학적인 분할에 의해 다른 공간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었는데, 연결되어진 직물의 방향도 모두 달라서 신체를 따라 드레이프 되고 신축되는 부분이 상이하다.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스커트 아래 부분으로 분할되는 주름 잡혀진 조각은 의복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의복 공간을 주름에 의해 입체화시켰다. 이것은 전체 안에서는 동일한 방향으로 커팅 된 조각이지만 자체 내에서는 주름에 의해 반대 방향인 사선의 흐름을 형성하여 의복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복 구성 방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의복 구성요소들을 만들어내는 지각적 탈구조는 다양한 결합이나 가변적 구조를 통해 ‘다양성’, ‘탈경계성’, ‘개방성’의 내재적 특성이 고찰되었다. 열린 구조를 지향하는 새로운 의복 구성 방식은 단순한 조작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일시성’, ‘역동성’의 내재적 특성이 고찰되었다. 또한 차이와 변화

의 지속적인 생성 가능성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과정적 사유를 의미하는 ‘불완전성’과 ‘불확정성’의 내재적 특성이 도출되어지고 상이한 결합을 통한 다양한 배치는 카오스적 무질서의 무한가능성에서 나타나는 ‘무의미성’이 고찰되었다.

## 2) 공간적 탈구조

공간적 탈구조는 전통적인 의복 공간을 해체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신체와 상관없이 의복 자체의 조형미를 창조하는 주름이나 오리가미, 공기주입에 의한 ‘공간의 확장’, 블립과 꼬임에 나타난 ‘공간의 상호관입’, 블러링, 재구성, 미구성 등에서 나타나는 ‘유동적 공간’에서 고찰되었다. 〈사진 15〉는 후세인 샬라얀의 2002년 F/W 컬렉션으로, 모든 요소들이 어지럽게 널려있고 자유롭게 결합되어지는 배치의 의미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사진 14〉에서는 복수 공간이 결합되어 미래적이고 미니멀한 경향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어지럽게 결합되어 있어서 창조 이전의 무한한 질서를 내포하는 원시적이고 내추럴한 경향을 드러낸다.

탈구조는 구조를 일탈하고 해체한다는 파괴적인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구조의 지속적인 생성을 가능케 하는 카오스적인 질서를 보여준다. 이것은 새로운

&lt;표 2&gt;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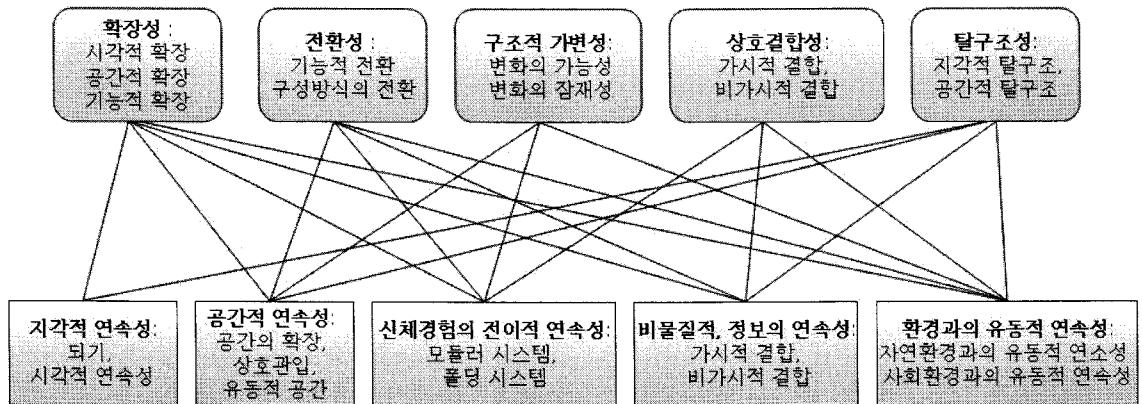
조형적 특성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
외재적 특성		내재적 특성
화장성	시각적 확장	비위계성, 과장성, 투명성 은폐성
	공간적 확장	개방성, 유동성, 가변성, 반복성, 비위계성
	기능적 확장	개방성, 상호작용성, 유동성
전환성	기능적 전환	가변성, 상호작용성, 개방성, 일시성, 유동성
	구성 방식의 전환	결합성, 단순성, 반복성, 복합성, 탈경계성, 역동성 불확정성, 일시성
구조적 가변성	변화의 가능성	결합성, 가변성, 역동성, 이동성, 탈경계성, 비결정성
	변화의 잠재성	우연성, 일시성, 불확정성, 가변성, 무한성, 역동성
상호 결합성	가시적 결합	결합성, 다양성, 탈경계성, 복합성, 개방성
	비가시적 결합	탈경계성, 통합성, 결합성, 은폐성
탈구조성	공간적 탈구조	탈경계성, 역동성, 모호성 일시성, 개방성,
	지각적 탈구조	다양성, 불확정성, 결합성 무의미성, 일시성, 역동성 불완전성, 탈경계성

생성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며 새로운 창조를 위한 탈영토화의 과정이다. 의복 구성 요소와는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것들이 나열되고 배치되어서 형성되는 탈구조는 기존의 전통적인 의복 구성 방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의복 구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복은 구성 소재나 방식에 따라 다양한 공간과 형태를 창조하게 되는데, 이것은 고정되고 확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의 창조를 위한 탐구의 과정이다.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기존의 의복 구조를 해체하는 탈구조는 경계를 와해시켜 자유로운 구성과 결합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탈경계성’을 내재적 특성으로 한다. 또한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의 상호 결합은 고착화 되지 않으며 새로운 공간 창조를 위해 일시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 구조를 지속적으로 변화 가능한 역동적인 배치로 전환시

킨다. 여기에서는 ‘일시성’, ‘역동성’, ‘개방성’의 내재적 특성이 고찰되었다.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결합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형태도 가변적인 배치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의미와 공간, 기능을 확정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불확정성’의 내재적 특성이 드러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되어진 의복은 다양한 층과 형태가 복합적으로 배치되어서 단일한 형태로의 규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각의 요소가 가지는 의미는 혼합되고 융해되며 과잉으로 넘쳐난다. 이것은 결국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의 무의미가 아닌 의미의 과잉으로서 각각의 의미가 사장된다는 ‘무의미성’과 이질적인 것들의 자유로운 결합을 통한 ‘결합성’이 내재적 특성으로 고찰되었다.

다음 <표 2>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과 조형적 특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lt;그림 2&gt;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질적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

다음 <그림 2>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질적 연속성과 여기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과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 IV. 결론

연속성은 정지되고 제한되어진 어떤 상태나 대상을 파악하는 무기체적인 '양적 연속성'과 시간의 흐름 내에서 지속적인 생성을 창조하는 유기체적인 '질적 연속성'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그동안 차이와 다양성을 수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불연속적이라고 인지했던 것은 긴 시간의 흐름 속에 질적 도약 단계가 일어나는 순간만을 포착한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차이와 변화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질적 연속성의 특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질적 연속성은 이미 그 자신의 내부에 다른 사물과의 관련성이나 관계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변화를 계속하고 차이를 생성하는 유기체의 삶의 지속이 곧 연속성이며 이러한 질적 연속성은 기존의 항상성으로서의 양적 연속성을 포함하는 연속성의 확장된 개념이다. 연속성에 대한 유기적 사유의 타당성은 베르그송의 지속이론, 바슐라르의 연속성의 일부분으로서의 불연속성, 데즈의 주름개념과 노마디즘, 사건개념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되어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을 확장성, 전환성, 구조적 가변성, 상호결합성, 탈구조성으로 고찰하였다. 확장성은 다시 시각적 확장, 공간적 확장, 기능적 확장으로, 전환성은 기능적 전환, 구성방식의 전환, 구조적 가변성은 변화의 가능성과 변화의 잠재성, 상호결합성은 가시적 결합과 비가시적 결합, 탈구조성은 공간적 탈구조와 지각적 탈구조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확장성은 시각적 연속을 통한 시각적 확장, 공간의 확장과 상호관입을 통한 공간적 확장, 타 영역으로의 기능이 첨가된 기능적 확장성으로 고찰하였다.
- 2) 전환성은 건축적 구성 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의복 기능의 전환이나 기존 구성방식을 일탈하고 새로운 구성 방식을 창조한 구성 방식의 전환으로 고찰하였다.
- 3) 구조적 가변성은 의복 공간을 가변적인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변화를 의도한 변화의 가능성과 일시성과 불확정성으로 인해 무한한 변화가 가능한 변화의 잠재성으로 분류, 고찰하였다.
- 4) 상호결합성은 의복과 타영역간의 결합에 의한 고찰로 결합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가시적 결합과 구조적, 기능적으로 결합하는 비가시적 결합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 5) 탈구조성은 유동적인 의복 공간의 창조로 인해 기준의 폐쇄된 공간을 일탈하는 공간적 탈구조와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확장적인 단일 대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의복을 지각적 탈구조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한정된 공간과 정지된 시간에서의 사물의 동일성만을 인지하는 양적 연속성을 포함하는 질적 연속성에 대한 고찰로서, 연속성을 차이의 생성과 같은 지속적인 창조적 행위나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시공연속체로서의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과정적 사유로 인지하여, 현대의 복잡다단한 사회현상과 패션 현상을 질적 연속성이라는 개방적이고 확장되어진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대상자체보다는 대상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고 결과보다는 변화를 지향하는 과정을 중시여기는 질적 연속성의 개념은 유기체로서의 자연과 삶에 대한 기존 예술과 미학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시키는데 일조 하였으며 특히 미학 분야에 있어서 근본적인 성찰을 가능케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질적 연속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현대 미학에서 나타나는 감성학으로의 전환에 대한 주장을 바탕으로 관계와 과정에 대한 미의식을 현대 패션이라는 시각적 매개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1987). 철학대사전. 서울: 동녘, p. 886.
- 2) 이정우 (2000). 담론의 공간. 서울: 도서출판 산해, p. 232.
- 3) 이정우 (2000). 접힘과 펼쳐짐. 서울: 거름, p. 219.
- 4) 노은주 (2003). 현대 건축에 있어 공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7.
- 5) 카오스 이론 : 카오스(Chaos)는 질서의 상대적 개념으로 완전한 무질서나 혼란 상태와 달리 외 관상 불규칙해 보이지만 일정한 규칙성을 가진 것으로, 혼돈 속의 내재된 질서, 시스템 속의 불규칙, 다양성이 내재된 현상으로 정의된다. 고전 물리학의 결정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비선형성, 불확실성을 다루는 것으로 정량적인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정성적으로 인지하려는 이론이다.
- 6) 김자경 (2004). 자연과 함께 하는 건축. 서울: 시공문화, p. 46.
- 아이하라 가즈유키 (1994). 쉽게 읽는 카오스. 서울: 과학세대, p. 4.
- 7) 프렉탈 이론 : 운동하지 않는 기호를 통해 운동하는 현실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에 다가서려는 새로운 역동적인 수학적 모델이다. 프렉탈은 부분 속에 전체가 들어있는 구조로 부분 이 전체를 반영하고 반복하고 있다. 만델브로는 이러한 자연의 불규칙성을 시뮬레이터 하기 위해 하나의 수학적 이상화로서 프렉탈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 야마구치 마사야 (1998). 카오스와 프렉탈. 한명수 역. 서울: 전파과학사, pp. 138-139.
- 8) 진기행 (1996). 둘리즈 연구-베르그송론-. 한국민족문화, 1(8), p. 4.
- 9) 양희영, 영숙희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연속성의 조형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46-54.
- 10) 블립 : 윤곽이 흐릿한 것, 얼룩지게 하는 것, 유동 가능한 물방울, 무조직 냉여리 등으로 정의 된다. 이것은 컴퓨터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보조기구에 의해 디자인 된 최근의 건축적 경향으로, 전통적인 구조들 간의 비율을 일탈하려는 반미학적 양식과 함께 등장하였다. 자연의 불규칙적이고 유기적인 생물의 형태나 척추가 없는 이라고 설명되는 블립은 실체가 없는 무정형의 형태를 창조한다. 자료검색일 2007. 8. 13,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Bradly Quinn (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New York: Berg, p. 210.
- 11) 블러링 : 기존의 질서에 편입되었던 환경적 요소들을 파괴하거나 해체하여 이미 존재해 온 대상을 새로운 관계로 재조합하거나 재배열하는 것으로, 이를 사이의 '경계 흐리기'를 의미한다. 이것은 원래 비디오 영상에서 세밀한 부분을 제거하여 흐릿한 영상을 만들거나, 카메라의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배경을 약화시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자료검색일 2007. 8. 13, 자료출처 <http://www.google.com>
- 12) Caroline Evans, Susy menkes, Ted Polhemus, Bradly Quinn (2005). *Hussen Chalayane*, p. 6.
- 13) Bradly Quinn (2002). *Techno Fashion*. New York: Berg, p. 110.
- 14) 탈영토화의 첨점 : 어떤 새로운 형의 추가나 제거, 순서 변경 등을 통해 기존의 배치를 다른 것으로 변환시키는 지점을 의미한다.
- 이진경 (2005). 철학과 굴뚝 청소부. 서울: 그린비, p. 154.